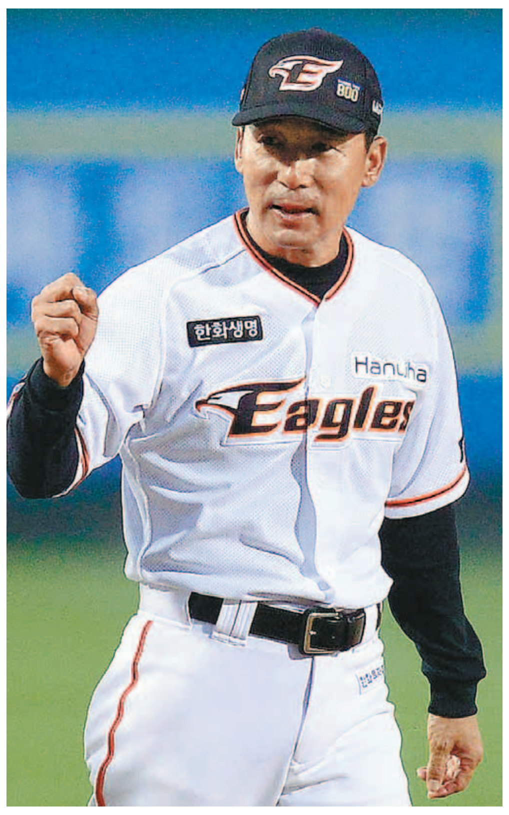
유남호 전 KIA 감독, 감독대행만 5차례 역대 최다

스토리 베이스볼

사연 많은 KBO리그 감독대행의 역사

프로원년 삼미 이선덕코치 대행 1호
강병철·김성근, 대행서 명장 반열에
대행서 곧바로 감독 임명 '총 13번'
김준환, 대행 3차례 맡고 감독 못해

2001년 김성근 LG 감독대행



이상군 한화 감독대행

한화 김성근 감독이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퇴진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23일 대전 KIA전부터 이상군 투수코치를 감독대행에 임명해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KBO리그에서 감독대행의 역사는 오래 됐다. 그 속에 숨은 사연도 갖가지다.

●원년 14경기째부터! 유구한 감독대행의 역사

KBO리그의 감독대행 역사는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역대 최초의 감독대행은 원년인 1982년 삼미 이선덕 코치였다. 삼미의 창단 감독은 '아시아의 철인'으로 불린 박현식(작고) 감독이었는데, 단 13경기 만에 성적부진으로 낙마했다. 특히 4월25일 춘천구장에서 열린 OB전이 결정타였다. 2회까지 8점을 뽑아내며 8-0으로 앞서다 11-12로 대역전패를 당한 것. 분통이 터진 삼미 고위층은 결국 박 감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4월27일부터 이선덕 투수코치에게 잔여시즌을 맡겼다. 그러나 전력 자체가 약했던 삼미로서는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현식 체제에서 시즌 3승10패(승률 0.231)를 기록했지만, 이선덕 대행체제에서 12승55패(승률 0.179)로 더 부진했다. 그해 승률 0.188(15승65패)은 역대 최저승률로 남아 있다.

해태도 원년 13경기 만에 감독대행을 찾아야 했다. 해태 창단 감독은 빨간장갑의 마술사 김동엽 감독으로, 강한 쇼맨십까지 갖춰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인물이다. 해태 박건배 구단주는 프로야구 창설을 주도한 이용일 KBO 초대 사무총장에게 "김동엽 감독을 우리 팀에 주지 않는다면 프로야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13경기 만에 이별하고 말았다. 성적부진(5승8패)도 있었지만, 코칭스태프와 불화가 결정적이었다. 해태는 4월29일부터 조창수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겨 잔여시즌을 치렀고, 이후 김응용 감독을 사령탑으로 불러 우승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KBO리그 36년 총 39명 55차례 감독대행

올해로 36시즌을 맞는 KBO리그는 최근 이상군 감독대행까지 총 56차례 감독대행 체제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한번이라도 감독대행을 맡은 사람은 총 39명. 2차례 이상 감독대행에 오른 인물은 8명으로, 그 중 유남호 전 KIA 감독은 역대 가장 많은 5차례를 기록했다. 1998년과 1999년 해태 시절 김응용 감독이 징계로 빠졌을 때 1경기씩 감독대행을 맡은 그는 2000년에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4경기(더블헤더 포함), 그리고 10월5일 1경기 등 한달 사이에 2차례 감독대행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어 KIA로 넘어간 뒤 김성한 감독이 2004시즌 도중 해임되자, 7월27일부터 시즌 종료까지 다시 감독대행을 맡았다. 이때 유남호 감독대행은 잔여경기에서 26승18패1무(승률 591)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마침내 정식 감독에 오르는 감격을 맛봤다. 그러나 이듬해 성적부진으로 84경기 만에 중도퇴진하면서 서정환 코치에게 감독대행 자리를 물려주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한편 역대 감독대행의 역사에서 2000년 9월1일부터 3일까지 3명이 동시에 감독대행직을 수행한 것이 눈에 띈다. 해태 유남호, 두산 유지훤, SK 김준환 감독대행이었다. 이때는 시드니올림픽 기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코칭스태프로 참여한 해태 김응용 감독, OB 김인식 감독, SK 강병철 감독을 대신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것이었다.

●김성근도 강병철도 감독대행에서 명장으로

감독대행 자리가 반드시 감독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성근 감독도 처음엔 감독대행부터 출발했다. 원년인 1982년 8월5일부터 19일까지 7경기(5승2패)를 감독대행으로 지휘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사연이 숨어 있다. 원년인 1982년은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눠 40경기씩, 연간 총 80경기를 치르던 시절. OB는 당시 김영덕 감독을 전기리그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진출권을 획득하자, 후기리그가 한창 진행되던 8월에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일본에 잠시 여행(명목상으로는 단기연수)을 보내주면서 김성근 감독대행이 7경기를 지휘하게 됐던 것이었다. 1984년부터 정식 OB 감독에 오른 김성근 감독은 이후 2001년 LG 이광은 감독이 물러나자 5월16일부터 시즌 끝까지 감독대행을 맡았다가 LG 정식 사령탑에 오르기도 했다.

강병철 감독은 1983년 7월에 물러난 초대 사령탑 박영길 감독의 뒤를 이어 감독대행을 수행한 뒤 정식 감독에 올라 1984년 롯데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감독의 중도하차 후 감독대행직을 잘 수행해 곧바로 정식 감독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감독대행에서 곧바로 정식감독에 임명된 사례는 강병철 감독을 포함해 2011년 SK 이만수 감독대행까지 총 14차례 있었다.

그러나 감독대행만 하다 한번도 정식감독을 하지 못한 사례는 더 많다. 김준환 감독대행은 대표적으로 불운한 케이스다. 1994년과 1999년 쌍방울, 2000년 SK에서 감독대행직만 3차례 수행했다. 그런데 1999년 말 쌍방울 정식 감독으로 승격됐지만, 쌍방울이 해체되고 SK가 창단하면서 단 1경기도 감독으로 지휘하지 못했다. 당시 SK 초대 사령탑에 오른 강병철 감독을 보좌해 수석코치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KBO리그 역대 감독대행

연도	팀	감독대행	기간	경기	성적(승률)
1982	삼미	★이선덕	4.27~11.10	67	12승55패(0.179)
	해태	★조창수	4.29~10.17	67	33승34패(0.493)
	OB	김성근	8.5~8.19	7	5승2패(0.714)
1983	MBC	유백만	4.26~6.8	25	11승13패1무(0.458)
	삼성	★이충남	5.27~10.31	70	34승33패3무(0.507)
	해태	백기성	6.15~6.24	6	4승2패(0.667)
	삼미	이재환	6.4~7.4	14	5승9패(0.357)
	삼미	이선덕	7.5~9.1	30	17승13패(0.567)
	삼미	박현식	9.2~10.25	20	8승11패1무(0.421)
	롯데	★강병철	7.6~84.1.9	50	21승29패(0.420)
	MBC	★한동화	6.9~6.18	4	3승1패(0.750)
1985	삼미	신용균	4.29~6.24	37	14승23패(0.378)
	MBC	★한동화	6.18~6.22	3	2승1패(0.667)
1986	삼성	정동진	4.25~5.9	10	5승5패(0.500)
	청보	★강태정	5.12~6.17 / 8.7~9.15	51	17승34패(0.333)
	MBC	유백만	7.17	1	0승1패(0.000)
1987	MBC	★유백만	7.11~11.16	54	26승24패4무(0.519)
1988	태평양	★임신근	4.23~9.9	93	33승59패1무(0.360)
1990	OB	★이재우	6.19~10.15	74	20승50패4무(0.297)
	롯데	★도위창	8.31~10.31	24	8승15패1무(0.354)
1991	OB	★윤동균	7.12~22	37	19승17패1무(0.527)
1994	쌍방울	김준환	8.2~9.8	7	2승5패(0.286)
	OB	★최주억	5.13~5.22	6	3승3패(0.500)
1995	쌍방울	★김우열	9.14~9.27	102	36승63패3무(0.368)
1996	LG	★천보성	5.16~10.18	44	15승29패(0.341)
1997	삼성	★조창수	7.24~10.30	40	21승17패2무(0.550)
1998	롯데	★김명성	6.24~7.31 / 9.4~10.29	71	30승40패1무(0.429)
	한화	★이희수	6.17~10.12	61	25승33패3무(0.431)
	해태	유남호	7.9~10.31	1	0승1패(0.000)
	쌍방울	이종도	9.4	1	1승0패(1.000)
1999	해태	유남호	9.27~9.30	1	0승1패(0.000)
	한화	유승안	5.1	12	6승5패1무(0.545)
	해태	차영화	5.22~6.4	12	8승4패(0.667)
	쌍방울	★김준환	5.30~6.10	51	11승38패2무(0.224)
2000	삼성	장효조	7.16~10.30	6	4승2패(1.000)
	SK	김준환	6.27~7.1	4	1승3패(0.250)
	두산	유지훤	9.1~9.3	3	3승0패(1.000)
	해태	유남호	9.1~9.3	5	1승4패(0.200)
2001	LG	★김성근	5.16~10.4	98	49승42패7무(0.538)
	롯데	★우용득	9.1~9.3 / 10.5	50	27승22패1무(0.551)
2002	롯데	★김용희	7.24~10.3	2	0승2패(0.000)
2003	롯데	★김용철	6.21~6.24	41	16승25패(0.390)
2004	KIA	★유남호	8.6~10.2	45	26승18패1무(0.591)
2005	KIA	★서정환	7.27~10.12	42	15승27패(0.357)
2006	LG	★양승호	7.26~10.2	80	31승46패3무(0.403)
2008	SK	이만수	6.6~10.2 / 6.19	1	0승1패(0.000)
2011	두산	★김광수	6.14~10.6	76	38승38패(0.500)
	SK	★이만수	8.18~10.31	40	19승18패3무(0.514)
2012	한화	★한용덕	8.28~10.7	28	14승13패1무(0.519)
	넥센	★김성갑	9.18~10.9	15	7승7패1무(0.500)
2016	한화	김광수	5.5~5.19	12	2승10패(0.167)
2017	한화	★이상군	5.23~	?	?

※ ★=전임감독 중도퇴진 후 감독대행

'공공의 적' 슬럼프…적극적인 선수가 터닝포인트를 만든다

조범현의 야구學

여름철 체력적 슬럼프 휴식·영양 보충 효과
주전 경쟁 등 심적 문제는 선후배간 대화로
투구 문제 등 기술적인 경우 몸부터 가볍게

슬럼프(Slump). 본래는 가치와 가격의 급전직하 혹은 불황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부정적인 의미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이면서도 깊은 부진과 침체를 뜻하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공의 적'이 바로 슬럼프다. 무수한 종목 가운데서도 슬럼프가 지닌 영향력이 가장 막대한 곳이 바로 '데일리 스포츠'인 야구다. 선수는 물론 코치, 감독까지 한번 수렁에 빠지면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한다. 슬럼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해 야구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범현 전 감독이 답했다.

Q : 오늘은 현장 야구인들의 크나큰 고민거리인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야구계에서 슬럼프란 어떤 의미입니까.

A : 슬럼프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벗어나야할 존재이기도 하죠. 슬럼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측면과 체력, 기술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정신적인 원인은 크게 경쟁구도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공적,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수록 선수 본인이 위축되면서 슬럼프가 올 수 있고, 덕아웃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사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체력과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즌 도중 체력이 대부분 소진될 경우에도 슬럼프를 겪을 수 있고, 타격 혹은 투구 밸런스가 오랜 기간 잡히지 않거나 노림수가 효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부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Q : 슬럼프를 피해갈 수 없다면 빠르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오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가장 적절한 슬럼프 탈출법은 무엇인가요. 다가오는 여름철 대책도 궁금합니다.

A :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슬럼프는 체력적 슬럼프입니다. 수면과 휴식, 영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휴식을 적극적 휴식과 소극적 휴식으로 나눠서 활용합니다. 적극적 휴식은 유산소 운동처럼 땀을 흘리는 방법이고, 소극적 휴식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특히 적극적 휴식은 화요일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중 첫 경기에 유독 부진에 빠지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월요일에 땀을 흘리면서 몸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 대비도 중요하죠. 원래는 장마철이 지나야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벌써 후덥지근한 날이 많더군요. 선수들의 경우 자기 몸은 자기가 먼저 챙겨야합니다. 무작정 훈련만 소화할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봐가며 시즌을 치러야겠죠. 저도 선수 시절 포수로 뛰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펑고도 많이 받고 싶고, 땀도 좀 흘리고 싶은 날이 있는 반면 경기에 앞서 푹 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요새는 훈련량을 두고 코치와 선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대화를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Q :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감독으로서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주문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슬럼프는 선수와 감독을 모두 위축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야구인도 역시 사람인데 부진 상황에서 쉽게 웃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슬럼프는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꾸준히 성적을 내는 선수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들만의 슬럼프 탈출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그 과정도 달리 준비해놓죠. 타자들은 선배나 코치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부진 이유를 찾은 뒤 그에 맞게 방법을 설정해야합니다. 투수는 조금 다릅니다. 투구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엔 러닝 등으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위가 떨어진 시기는 팔과 어깨에 피로도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휴식을 평소보다 더 취해야하죠. 포수는 체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입니다. 체력 부족의 경우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정신적 측면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보면 7~8경기 정도는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직구 사인을 내면 직구가 난타당하고, 변화구를 내면 변화구가 홈런이 되는 날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리 명포수라고 해도 매번 이상적인 볼 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코치나 감독과 상의해 경기 출전보단 벤치 대기를 통해 덕아웃에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독 역시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데이터를 참고해 작전을 내지만 결국 교체 타이밍은 감독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다보면 감독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슬럼프를 겪게 되죠. 잠도 못 자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감독도 신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빨리 잊는 수밖에 없습니다.(웃음)

Q : 이번엔 팀 전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최근 여러 구단들이 코치진 소폭 교체 등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애쓰는 모습인데요.

A : 이 문제는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일단 감독이 베테랑이냐 아니냐에 따라 코치진 개각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연차가 꽤 높을 경우 감독은 이를 두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분위기 전환과 팀 쇄신을 위해 코치 교체가 필요한지 고민한 뒤에 결론을 짓죠. 반면 초보감독의 경우 구단 측에서 먼저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결정은 감독이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정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